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부강번영하는 조선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진보적인류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나이지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회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들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극단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강국을 일떠세우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였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민주공화국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상임비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조선의 현실은 만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있다. 자력자강의 강자들인 조선인민의 불굴의 힘은 승리할 레일을 앞당겨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브라질공산당 정치 및 국제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그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강국을 일떠세우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주체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신 회세의 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다.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려 눈부신 비약과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할것이다.

슬로벤스코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혁들을 이룩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온 세계가 격찬하는 절출한 위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창조하고있다고 하면서 파키스탄 라호르주체사연구조직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영의 담보 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각하를 높이 모시고있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로선과 정책으로 조선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하고있는것을 목격하고있다.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주, 평화,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계속 이룩할것이다.

《조선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있는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조선이 생명처럼 여기고 견지해나가는것은 바로 자주이다.

서방은 조선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온 세계가 격찬하는 절출한 위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이것은 마자르로동당이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방글라데슈로동당, 방글라데슈민주사회주의당,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방글라데슈자리아당, 방글라데슈인민련,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방글라데슈주체사연구조, 방글라데슈순군정치연구소조 련합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선반도정세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조성된 난관을 정면돌파과정으로 뚫고나갈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인디아의 인터넷통신 보이소 오브 밀리언즈 책임주필은 이번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력과 그 두리에 철동같이 굳게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용진해가는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회의였다고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공동성명은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고수하려는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자주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자제의 힘으로 부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기어이 일떠세우려는것은 오늘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굳건히 새겨진 역센 자주적신념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불굴의 자주적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결연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난관을 격파하고 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신념이란 자기를 믿는 마음이며 자기 위업이 정당하고 꼭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는 사상의식이다.

공화국인민들이 가슴에 지닌 신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성스러운 민족자주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며 미래에 대한 락관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는 무수한 고난의 언덕을 넘어 승승장구해온 력사이며 그 행군길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보다 강해지고 위대해졌다.

자주적신념을 고수하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는다. 이런 각오가 오늘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더 굳게 자리잡았다.

이러한 신념을 지닌 공화국인민들은 지난해에도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파란 투쟁을 벌려 국가의 힘,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추진시킬,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대세력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후심한 불안과 공포를 안겨줄 힘, 단국방과외의 눈부신 비약, 농사에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마련, 삼지연시구리기 2단계

공화국인민들의 자주적신념

공사결속, 중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건설 훌륭히 완공...

이 때문인가. 머지않아 준공의 화려한 테프를 곱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순천린비포공장건설,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강건설들,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인 금속, 석탄, 건재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

이 값진 성과들은 령도자의 두리에 천경만경의 성세를 쌓은 공화국인민들이 가슴에 지닌 자주적신념으로 마련할수 있는 필연적결과이다.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은 절대로 팔수 없다는 진리로 뭉쳐진 공화국인민들의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천만산악도 멈춰세우지 못할것이다.

정면돌파전에 용약 펼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진군의 맨 앞장에는 백두령장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신다.

몸소 백마를 타시고 옛 항일의 전구들을 돌아보시고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던 절세의 위인.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뜨거운 심장에서 뿜어버치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숨결을 같이할 때 정면 못할 요새가 없고 부강번영할 밝은 미래를 능히 제할것으로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

5차전원회의에서 천명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은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정면돌파전으로 부른 조선로동당의 열렬한 호소는 자주화 의 정치리념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 실현에 이바지하는 조선사회민주당 전체 당원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자

력자강의 대진군에 애국적 열정과 창조적지혜를 아낌없이 바쳐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우당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조선사회민주당은 언제나 조선로동당의 정당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여왔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의 자주적업무를 감히 유린하며 공화국

의 번영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을 단호히 짓궂게 버리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범위에서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력사

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천명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로선은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만민이 복락을 누리는 지상천국건설의 활로를 밝혀준 대강이라고 하면서 이를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운명과 미래

를 위한 애국의 한길에 자기의 피와 땀,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단군민족의 강한 기질이고 전통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천도교인들앞에는 광명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자력, 자강의 거창한 창조대전에 용약 펼쳐어나 자신들의 있는 지혜와 힘을 다 바쳐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공화국의 전체 천도교인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자각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지상천국,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로상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오직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 용진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전체 천도교인들이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

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단호히 짓궂게 버리고 지상천국, 리화세계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자력자강대진군에서 조선로동당의 우당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백두산으로 끝없이 흐르는 답사행군대오

공화국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몸소 무릎치는 생년길을

헤치시며 군마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백두전주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가 끝없이 흐르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2월 한달동안에만

도 각지의 130여개 단체의 9천여명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였다.

올해에 들어서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열풍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하였다.

평양시와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라선시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도 향한 답사행군대오가 계속 이어지고있다.



해산시, 삼수군, 보천군, 풍서군을 비롯한 량강도안의 일꾼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에 올랐다. 이들의 뒤를 이어 량강공업대학을 비롯한 도안의 대학들과 해산시 해명초중등학교, 해화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초급, 고급중학교들에서도 교원,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에 참가하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평양시와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라선시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도 향한 답사행군대오가 계속 이어지고있다.

답사행군에 참가한 각계층 인민들은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힘차게 부르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통해 항일혁명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뼈에 깊이 새기었다.

백두산을 찾아 답사행군대오들이 끝없이 물결쳐 흐르고있는것은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역센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3관편성관현악단조직 50돐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진행

3관편성관현악단조직 50돐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1월 26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기관 교원, 학생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춘 교향악의 새 경지를 개척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차넘치는 속에 공연무대에는 협주곡, 관현악, 현악합주 등이 울렸다.

피아노 협주곡 《김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는 우리 나라 교향악의 시련을 열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서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세계적인 3관편성관현악단을 꾸려주시고 조선의 넘과 정서가 흐르는 우리 식 교향악발

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회억으로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주체적배합관현악의 대표적작품들인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아리랑》이 무대에 올라 관람자들을 환희로운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신비한 음색과 장쾌한 선율로 오페라와 무르익는 사회주의협동전야와 아름답고 풍만하게 꽃피는 인민의 생활,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성을 한복의 그림자나 생동하게 안겨주는 명품들을 감상하면서 관람자들은 교향악을 우리 공화국,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보, 문화적재보로 빛내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을 무한한 격정속에 되새기었다.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 관현악 《매혹》, 교향력곡 《당에 드리는 노래》, 관현악 《명곡목록》 등에서 출연자들은 관록있는 세계적인 예술단체, 나라의 대표적인 예술창조집단으로서의 3관편성관현악단의 자랑찬 면모와 창조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우리 식 교향악의 장중한 울림과 심원한 정서적감각력으로 장내를 격동시킨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안고 신심뜨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과 숨결을 뜨겁게 안겨주었다.

관현악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로 막을 내린 음악회는 장엄하고 심원한 정서력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덕과 정으로 강한 나라

오늘 공화국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정면돌파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격난을 뚫고 순간의 멈춤이나 굴함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공화국의 벽찬 승결, 그처럼 거대한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일심단결의 힘이다.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나라에 덕과정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이다. 여기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있다.

덕과 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거나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에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존경과 사랑, 고마움의 감정도 가지게 된다. 덕과 정은 국가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해당 국가의 공고성과 발전성은 그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관계, 다시말하여 사회생활과정에 맺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좌우된다.

물론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은 법이며 사회생활에서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덕과 정이다. 공화국은 덕과정이 차넘치는 나라이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강선망의 《치녀 어머니》며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학생을 업고 매일 수십리나 되는 등교길을 오간 풍강군의 교육자, 환자의 광명을 위하여 자기의 결막까지 주저없이 바친 황해북도인민병원의 녀의사, 특류영예군인의 안해와 남편이 된 사람들, 지어 남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미덕의 주인공들은 무수하다.

하기에 언제인가 한 해외 동포는 공화국의 현실에 감복하여 《...나는 마치고도 자기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귀중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미담들을 채집하여 하나씩, 둘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현대 이것이 웬 일인가. 깊은 숲속 혹은 들뜬에 회귀운 꽃과 알찬 열매를 기대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조

국의 들뜬에는 마치고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양 온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어있지 않았다.》고 심금을 토로하였다.

에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동정심이 많으며 레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있는 우리 민족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상이 도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고운 꽃과 알찬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사람들도 어떤

사회제도를 만나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인간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공화국은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었으며 오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여 인간사랑의 대화원으로 되고 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게 되었다는 만족감에서 그처럼 회례에 넘치시여 물고기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숭고한 화폭과 더불어 《이제어경》이 늘어나고 삼복의 깊은 밤새로 만든 러객운수기계를 리용하며 기뻐할 시민들을 그려 보시며 지으신 환한 미소속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같은 창조물들이 태어났다.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마땅이 기뻐하신 그날의 사연이 어려웠는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학생소년들이 해빛밝은 등교길을 오고간다.

인민에게 차례질 행복의 선물이 마련되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때면 바치신 로고를 고스란히 묻어두시고 무한한 회례의 세계에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미소는 인민의 심장에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이다.

인민들은 말한다.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고... 그 위대한 사랑과 정에 이끌려 번영의 력사를 수놓아가는 변혁의 시대,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고 서로 돕고 이끌며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현실이 공화국에 펼쳐져있는 것이다.

훌륭한 인력육사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단결의 구조를 꿰뚫었다. 그러나 누구도 사회의 단합을 실현해보지 못한것은 덕과정이 흘러넘치는 사회제도를 건설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공화국의 일심단결이기에 그것은 그처럼 한계를 모르는 절대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었기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곤 한다. 우리의 단결이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순수 사상의지의 공물성만으로 이루어진것이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강할수 없었을 것이다. 오로지 총성과 의리로 결합된 사상의지적단합이 있어 우리의 강점을 라수할수 있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오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공화국이 승승장구하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창조와 건설이 펼쳐지고있는것은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도덕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어있기때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열렬해지는 덕과 정으로 하여 공화국의 단결은 그렇듯 공고하게 다져지고 조선의 힘은 그렇듯 출기차고 역센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령도자를 우러러 목청껏 환호하는 인민들



중평남새은실농장마을의 새집들이 경사



강선망의 《치녀 어머니》

장군님과 백두산 눈보라길은 꽃핀 들길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실 때 하루에도 백번은 더 번번다는 백두산의 날씨는 세찬 눈보라를 일구며 기승을 부렸다. 한치 앞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한 일꾼이 그이께 이런 날씨에 백두산마루에까지 오른다는것은 모험이라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이것은 모험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고난의 행군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은 얼마나 좋은가, 고난의 행군길이 철의 불바다라면 이 길은 들꽃핀 들길이다, 꽃핀 들길을 걷는 셈인데 모험은 무슨 모험이겠는가 하시며 오르시였다. 그날 사남계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시며 백두산마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설경이 얼마나 숭엄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서 내려갔다면 이 절경을 볼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고 거이 올라섰기에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된것이다라고 하시며 백두산야를 굽어보시였다. 백두의 기상을 타고나신 그이께서는 백두산의 사나운 눈보라길을 들꽃핀 봄향의 길로 대하시며 백두산마루에 오르시여 나라와 인민의 밝은 미래를 굳게 확신하신것이였다.

백두산설경은 힘을 준다

이제 겨울날 눈내리는 설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눈덮인 백두산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겨울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었지만 나는 겨울이 좋다고, 나는 눈덮인 길을 걸을 때면 백두산일영고향집을 생각하곤 한다고, 백두산은 겨울에 보아야 볼맛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백두산의 설경을 자주 그려보곤 한다고 하시며 백두산의 설경을 생각하느라 눈보라를 헤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휘날리는 붉은기가 눈앞에 삼삼히 어려오고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유격대행진곡》이 랑랑 울려온다고, 백두산의 설경은 나에게 힘을 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상은 백두산의 기상이고 그이의 담력은 백두산을 닮은 것이였다. 본사기자

행한 길과 마다하지 않아서

공화국의 전진을 저에하는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이 오늘 이 땅에서 과감히 벌어지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등에 주저나 동요를 모르고 제 손으로 행복한 배일을 앞당겨가려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박혀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재부들과 더불어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과 웃음을 생각할수록 공화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고집과 락으로 여기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온다.

우리가 1년 교생하면 조국은 10년 전진한다고 하시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발걸음을 멈출것 없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난 해에 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험한 길, 곳은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시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금야강2호발전소를 찾으면서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마련한 군내 인민들의 창조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 위험한 철사다리 서슴없이 오르시던 그이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인민이 창조한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더없이 소중한 귀중한것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철사다리에도 오르시였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령도자만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에서 헤칠수 있는것이였다.

바로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령도자시기에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새 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시기 위해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신것 아닌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력력히 어려있다.

어느해인가 새로 건설되고있는 한 육종장을 찾으시였을 때이다.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일꾼들에게 또 다른 호풍건설장으로 가보자고 하시였다.

순간 일꾼들은 당황하였다. 그곳으로 가자면 달구지나 겨우 다닐수 있는 소로길을 따라 오물오물한 고개길을 넘고 또 정검들이 놓인 개울도 건너야 하였기때문이었다.

일꾼들이 어찌할지 몰라 머뭇거리고있는데 그이께서는 몸소 차에 오르시여 길 아닌 길을 남 먼저 헤쳐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는 앞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환경생 열고 험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심정으로 이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들도 다 가보려고 한다고, 자신께서 좋은 길로 번듯하게 꾸려진 곳들만 다녀서는 언제가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 교생한것만큼 조국의 안년이 지켜지고 인민의 행복이 꽃핀다는 생각, 이 길을 누구도 대신할수 없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헤쳐가야 한다는 비상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걸으신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우에 새겨진 감동깊은 사연들을 다 헤아릴수 없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내대시며 작은 목선으로 사름치는 날바다를 항행하신 이야기, 인민이 리용할 식도의 첫 손님이 되시고 새로 만든 경비행기의 조종실에 앉으시여 시험비행까지 하신 사실 등 그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진실장의 험한 진창길도 걸으시고 안전관간이 없는 계단도 서슴없이 오르시였으며 또 언젠가는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 향기 넘치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여 물고기창고의 절임탕 크레에 앉으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그이께서 헤쳐가신 헌신의 길우에서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경제와 국방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루어졌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일떠서는 창조물들로 천지개벽의 새 지도를 그리고 황금림,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며 행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했다.

이 놀라운 변혁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의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여 안아오신 애국헌신의 산이다.

그이께서 찬비가 내리고 함박눈이 쏟아져도, 피악별이 내리쬐이고 사나운 바람이 몰아쳐도 끊임없이 찾아가신 공장과 농장, 건설장마다에 사회주의전진의 동음 높이 울리고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졌으니 경애하는 원수님 바치신 헌신의 땀방울이 조국이 가는 길에 전진의 디딤돌이 되고 비약의 튼튼한 나래로 되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그 열화같은 애국의 힘으로 이 땅은 더욱 약동하며 끓어오르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나날이 더해만 가는것이였다.

본사기자 주일봉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새 생활을 시작했건만 어머니는 어릴적 철부지였던 나를 강가에 내보낸 심정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린다.

그럴 때마다 한가정의 세대주이고 나이 서른을 넘긴 나로서는 때로 지나친 근심이라 하기도 한다.

《어머니, 걱정일랑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어머니는 시간이 있을적마다 우리들의 세상림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 림을 찾곤 한다.

나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속으로 저르르 울려드는데 생황상대로까지 헤아려 보살펴주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 이번 겨울은 더욱더 추운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우리들의 친어머니 품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비록 소박하고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닐수 없는것이어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크다고 한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령도자의 사랑을 매일 매 시각 느끼고 받아안고있다.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포연서린 전화의 나날에도,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끊길 줄 모르고 변함없이 이어졌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령도자의 품을 어머니 품이라고 부르며 기뻐도 슬퍼도 달려와 안기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는 것이다.

슬하에 자식을 둔 어머니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며 마음편히 쉬고싶은 때가 있

다. 허나 남아있는 자식을 위해 심신의 모든것을 다 기울인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생전에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쉬지 않고 헌신의 날과 날들을 이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오늘도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정으로 수놓아진 말고면 현지지도의 길을 위임없이 걸고계시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인민들에게 새로운 문명을 끊임없이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일떠선 인민사랑의 결정체인 삼지연시와 양덕은천문화휴양지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런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품속에서 사는 공화국의 인민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차철우

웃으며 가는 승리의 진군길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최천시의 어느 한 기업소생산공정을 돌아보시고 구내길을 걸으실 때였다. 구내의 주변에는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기고 길 양옆에는 단뿔나무아지마다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마치 휴양소나 파원을 방불케 하였다. 이날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구내의 풍치를 보고 또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이 기업소주내에 단뿔나무가 2 000여그루나 있으며 해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따다가 종업원들과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해주고 있다고 보고드리었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내를 깨끗하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자강도사람들이 원래부터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꾸리고 사는데 겹겹이 치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산건물벽에 써붙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바라보시며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그 어떤 주지와 동요도 없이 근로인민이 주어진 고마운 이 제도를 무적마치로 든든히 지켜가려는 최천로동계급의 락관주의정신이 생생히 어려있는 글밭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기업소주내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멋있게 써붙였다고, 우리도 지금 가면서 웃고있지 않는가고, 아주 좋은 구호라고 뜨겁게 교시하시면서 더욱 활기있게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의 걸음을 보복을 맞추어가는 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사람들이 비판을 모르고 웃으며 살고 일해오게 한 그 락관주의는 어디서 오느것인가? 공화국의 인민들이 지닌 그 락관주의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오는것이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그이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면서 그이의 예극의 구상을 꽃피워가는 훌륭한 인민이 있기에 머지않아 행복의 래일은 꼭 오고야만한다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이 오래동안 가슴깊이 간직해온 굳은 신념인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장군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따르면서 그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난관과 역경을 웃으며 맞받아 헤쳐나갔고 그 길에서 강계정신도 창조하고 성강의 봉화도 지펴올리었다.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은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는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도 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자력경쟁의 힘으로 정면돌파해나가고있다. 백두령장이시며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온 나라가 함께 걷는 진군길이어서 어디서나 웃음소리 높고 승전의 북소리 크게 울리고 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시조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1)

김영일

기쁨의 별천지

여기가 정말 양덕명인가 모두 놀라운 눈길 거들쭌 모르네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구나 천변만화하는 하늘의 조화인듯 심심산골에 눈부신 문명의 휴양지 일떠 섰네

모두가 신남선녀들이라네 휴양지가 너무도 멋쟁이니 꽃같은 처녀들은 더 꿈꾸나 총각들은 더욱더 의젓해보이누나

로인들도 한껏 젊어진듯 주름펴고 웃누나 너무 활황해 어서 들어서고싶은 실내 온천장

흰 증기 뿜어내는 소나무아래 야외온천장 저기 저 하늘에서 뻗은듯 하얀 스키 주로들

준마를 내달리는 승마공원 어딜 가나 웃음ियो 기쁨이로구나

보아라, 약점첨가욕조에 든 이들 금시 만병을 다 떨군듯 회색이 만면하고 《천절어》들 꼬리치는 육조에서는 즐거움 웃음소리 그칠줄 몰라 정말 흥이로다 멋이로다

어느곳에서나 터치는 웃음소리에

욕조결의 물고기조각도 그만 참지 못해 저도 입을 하 벌리고 따라웃는가 금시 욕조에 뛰어들듯 몸을 솟구치누나

온천물이 출렁이네 땅마다 능글능실 꿀물같은 온천수 끊임없이 흘러드네 원수님 마련해주신 온천문화휴양지 마음껏 기쁨을 향유하는 인민의 광만

뜨거운 온천은 땅에서 솟았고 인민의 즐거움은 가슴에서 솟았는 아,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사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웃음의 땅이여 기쁨의 별천지여

기다려주신 시간

하늘아래 온양이라 불리우는 다락식온천탕에 몸을 푹 잠그고 산천경계 바라보는 쾌감을 으름이지만 온천물에 탐알을 삶아내는 탐알사는 러도 참 이채롭구나

온천물에 띄운 탐알광주리 신기하게 바라보는 어른들 눈빛 어찌 아이들과 다를바있으랴



기다려주신 시간

저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기다리는 탐알사는 시간은 걸던가 짧던가

사람들이여, 바로 이 터여라 우리 원수님 용출구열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탐알사는 시간까지 측정해보시며 탐알사는 시간 기다려주신 바로 그 곳이

그 시간은 행복에 넘친 인민의 모습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 그려보신 시간 이런 명소, 이런 별천지에 흥성일 인과 그 모습들 그려 가슴에 가득 차오르는 기쁨과 희열을 금치 못해하신 시간

기다려주신 그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아도 인민의 더 좋은 래일을 위해 원수님 기울으신 천금같은 시간 오, 인민의 무궁할 행복의 래일이 그 시간에 다 비껴있어라



공화국의 품에 안겨

광복있는 화술배우로 되기까지

우들의 연극창조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점차 배우가 될 희망까지 품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연기경험도 없는데 체두도 틈틈히 지 못한 그를 그 어디에서 도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에서 문건거 절을 당하고 어떤 때에는 극장무대뒤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훑쳐보다가 발걸에 채워

하지 못하였던 그의 화술에서 남다른 재능의 싹을 발견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번역영화화술배우로 불러주시었다. 오향문은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속에 영화번역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외국영화번역사업은 오향문을 비롯한 번역영화창조집단에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였고 실천적인 경험과 리론상으로도 준비되어있지 못하다보니 고충도 많았다.

만 말의 시작과 끝은 맞추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장군님의 세심한 교시를 받아안고서야 오향문은 번역영화에서는 어쩔수 없는것으로 치부해왔던 이 문제가 결코 스쳐보낼수 없는 배우의 자세와 림장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며 그는 차츰 번역영화배우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다. 해방과 함께 부풀어오르는 희망을 안고 서울의 어느 한 연극단에 소속되어 배우생활을 하던 그는 남조선에 또다시 기어든 외세의 탄압에 의해 4년간의 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아,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마는것인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던 그는 몇달후 영문없이 감옥에서 놓여나왔다. 후날에야 안일이지만 그것은 진보적예술인들사이에서 불신을 조성하려는 놈들의 모략이었다.

그런데 주체61(1972)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배우들의 고충을 헤아리시게 하고 번역영화를 만드는 목적이나 다른 나라 영화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참고로 볼수 있게 하자는데 있는것만 큼 번역영화를 만들 때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야 하며 그러자면 배우들이 훌륭한 화술로 인물의 대사를 성격과 정황에 맞게 자연스럽고 실감이 나게 형상화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이러한 피타는 노력으로 그는 조선어를 외국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외톨림의 시작과 끝을 일치시키는것은 물론 인물의 심리와 개성적 성격이 번역되는 대사에 있어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건강상태에 대하여 또다시 넘려주시었다. (보잘것없는 이 몸을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품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사랑, 이 은혜에 무엇으로 다 보답한단 말입니까. 장군님!)

문밖에 나뉘길까지 했다. 그래도 그런 수모를 달게 받으며 부지런히 따라다니던 덕으로 종내 어느 한 극단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갔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몇년후에는 그토록 꿈꾸던 연극배우가 될수 있었다. 했으나 배우가 된 그 기쁨이 채 가시지기도 전에 일제놈들의 탄압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던 극단이 해산되고말았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진보적예술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조선에 대한 일체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순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그러나 남들도 미처 발견

한 단어를 해방한 번역영화화술배우로 되게 되었다. (아,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마는것인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던 그는 몇달후 영문없이 감옥에서 놓여나왔다. 후날에야 안일이지만 그것은 진보적예술인들사이에서 불신을 조성하려는 놈들의 모략이었다. 그러나 주체61(1972)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배우들의 고충을 헤아리시게 하고 번역영화를 만드는 목적이나 다른 나라 영화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참고로 볼수 있게 하자는데 있는것만 큼 번역영화를 만들 때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야 하며 그러자면 배우들이 훌륭한 화술로 인물의 대사를 성격과 정황에 맞게 자연스럽고 실감이 나게 형상화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이러한 피타는 노력으로 그는 조선어를 외국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외톨림의 시작과 끝을 일치시키는것은 물론 인물의 심리와 개성적 성격이 번역되는 대사에 있어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건강상태에 대하여 또다시 넘려주시었다. (보잘것없는 이 몸을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품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사랑, 이 은혜에 무엇으로 다 보답한단 말입니까. 장군님!)

이렇듯 친어머니의 다신한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오향문과 그의 딸 오미란은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화술배우로, 인상깊은 영화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식을 위하여는 어머니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주체80(199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향문을 몸가끼이 부르시고 건강상태와 나이를 물어보시다가 일흔번째 생일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향문동무의 70대생일은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보내달라 하려주시었다. 오향문은 그 소식을 듣고는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해 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예술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셨을 때에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건강상태에 대하여 또다시 넘려주시었다. (보잘것없는 이 몸을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품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사랑, 이 은혜에 무엇으로 다 보답한단 말입니까. 장군님!)



오향문과 그의 딸 오미란

도 받아보지 못한채 설움과 눈물많은 유년시절과 리별하였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14살이 되었다. 아직은 빠도 굳기 전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은 그를 거친 생활의 바다에 풍덩 빠뜨렸다. 오향문은 일자리를 바라고 파리떼처럼 물러드는 인과속을 헤매다가 요행 서울 종로 거리에 있는 철물점 배달부로 취직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운문을 무겁게 누르는 철물점에서 잔뼈를 굳히었다. 그래도 그 고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것은 철물장치를 운반해주는 대가로 연극을 무료로 관람할수 있는 기회가 차례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오향문은 배

늘까지도 깨끗이 거두어주시어 그가 언제나 희열과 광만에 넘쳐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지난날 길가의 조약돌신세와도 같았던 자기를 여러차례 몸가끼이 불러주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그는 뿔어오르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딸인 오미란의 장애문제까지도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이렇듯 친어머니의 다신한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오향문과 그의 딸 오미란은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화술배우로, 인상깊은 영화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식을 위하여는 어머니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주체80(199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향문을 몸가끼이 부르시고 건강상태와 나이를 물어보시다가 일흔번째 생일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향문동무의 70대생일은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보내달라 하려주시었다. 오향문은 그 소식을 듣고는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해 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예술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셨을 때에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건강상태에 대하여 또다시 넘려주시었다. (보잘것없는 이 몸을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품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사랑, 이 은혜에 무엇으로 다 보답한단 말입니까. 장군님!)

이렇듯 친어머니의 다신한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오향문과 그의 딸 오미란은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화술배우로, 인상깊은 영화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식을 위하여는 어머니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주체80(199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향문을 몸가끼이 부르시고 건강상태와 나이를 물어보시다가 일흔번째 생일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향문동무의 70대생일은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보내달라 하려주시었다. 오향문은 그 소식을 듣고는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해 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예술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셨을 때에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건강상태에 대하여 또다시 넘려주시었다. (보잘것없는 이 몸을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품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사랑, 이 은혜에 무엇으로 다 보답한단 말입니까. 장군님!)

본사기자 한일혁

본사기자 한일혁

대결광신자들의 반민족적추태

최근 남조선군부가 설명절을 계기로 또다시 대결광신자들의 반민족적추태를 부린 사실이 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설명절을 맞아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이 청와대 인근에 배치한 《패트리오트》 요격 미사일부와 서해전선의 해안경계 부대를 돌아다니며 그 무슨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떠들어대던 것은 조상전래의 명절마저 악용하는 반민족적추태가 아닐 수 없다.

머리통에 극도의 대결의식이 팍 들어찬 전쟁광신자들이 할 수 있는 반민족적추태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것처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기쁨과 희망속에 즐겁게 맞고보내는 명절이 설명절이다. 이날을 맞아 여러 사람들은 집안밖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하여 명절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준비한 갖가지 설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여

극우보수패거리의 폭력적인 망동을 저지시킬 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광화문초불시민연대가 1월 29일 서울의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초불집회를 방해하는 극우보수패거리의 폭력적인 망동을 목격한 경찰당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1월 11일 《자유연대》 등 극우보수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초불집회를 향해 방송을 요란하게 불어대며 방해하였는가 하면 수백명이 물러

왔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민족의 이러한 설명절 풍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런 뜻깊은 명절날에도 《북의 미사일 위협》,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떠들어대던 것은 조상전래의 명절마저 악용하는 반민족적추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이 얼마나 동족대결에 환장하였는가 하는 것은 얼마전 군부우두머리들이 《철통같은 런합방위태세유지》와 《단호하고 주저없는 대응》에 대해 기쁨을 도하고 최전선지역을 돌아치며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놀음을 벌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군부가 새벽부터 동족대결과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군부호전세력의 망동을 두고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을 중대시키는 장본인》, 《무슨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명절에까지 부리는 망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호전적세력들이 갈 곳이란 파멸의 깊숙한 함정뿐이다.

리서철

굴종의 대가는 비참할 것이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인의 불쌍한 처지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소말리아 아덴만수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상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취한 조치가 《파병은 아니다》며 구구히 변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고 저들의 친미굴종적추태를 정당화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파병도 하면 남조선당국은 언제 한번 상전의 강요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이번 파병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남조선당국의 호르무즈해협파병은 명실공히 청장년들을 상전의 해외침략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심겨버지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행위로서 민

족의 이익을 해치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생애같은 청장년들을 상전의 해외침략돌격대로 내몰아 죽음의 구렁렁에 밀어넣으면서도 《육의》와 《국인안전》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그야말로 상전앞에서 꼬리흔드는 살상개 한가지이다. 그러다고 상전이 고기덩어리를 병풍 던져주겠는가. 고기덩어리를 주기는 고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더 짜내겠다고 야단을 치고 있다.

주권과 주대가 없는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굴종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외세에게 굴종하고 추종하는 것으로 차레질것은 불행과 고통, 재앙과 죽음밖에 없다.

갈수록 더해지는 당국의 친미사대굴종에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은 쌓일대로 쌓여 이 한겨울에도 거리

지배와 예속의 쇠사슬을 끊으려고

떨쳐내실 것을 남조선 각계에 호소하였다. 외세가 남북남을 가로막고 앉은 온갖 전횡과 약탈을 일삼는 것으로도 모자라 남조선인민들의 형세를 강고히 빨아내려고 강도적요구를 내리먹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저들의 리익추구를 위해서라면 그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외세의 파렴치성에 격분을 금치 못하는 남조선인민들이다. 이런 민심을 반영하여 남조선의 진보적대학생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남조선 각계층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의로운 대학생들에게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범죄자》의 감투를 씌워 구속하고 사건조사와 재판놀음을 벌여왔는가 하면 해가 바뀌도록 계속 철축수에 가두어놓고 있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외세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학생들에게 대한 2차재판놀음을 연기하면서 얼떨떨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한다.

남강도적인 상전에게는 항변 한마디 못하면서 온갖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강점자, 약탈자들을 단죄한 의로운 대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워가두어놓고 있는 현 당국자들의 반역적추태에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분노를 터치

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인민들이 벌이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참여연대, 진보연대를 비롯한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공동성명 등을 통해 청년들을 상전의 패권적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파병결정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자파병이라고 하지만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경쟁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위험과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조선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파병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역행으로 차레지는 것은 남조선의 이전 보수 《정권》들이 보여준 것처럼 쓰디쓴 파멸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거리에서 매일같이 항의집회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참여연대, 진보연대를 비롯한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공동성명 등을 통해 청년들을 상전의 패권적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파병결정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자파병이라고 하지만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경쟁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위험과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조선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파병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역행으로 차레지는 것은 남조선의 이전 보수 《정권》들이 보여준 것처럼 쓰디쓴 파멸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21세기의 돈끼호테

남조선에서 《자한당》 내부가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대표라고 하는 황교안이 《통합》과 《혁신》의 미명하에 자파세력확장에 미쳐 날뛰면서 당내부에서 대립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생동이》인 황교안이 박근혜의 치마폭에서 배운 것만 독단과 전횡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독사같은 박근혜의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황교안은 지금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자면 현역의원 50%를 《물갈이》해야 한다. 《혁신》을 위해 《회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독단과 전횡으로 반대파들을 제하고 자파를 늘릴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자기의 리익을 차리는 데 열이 오른 당내의 각계파가 반기를 든 것은 물론이다. 친박은 친박대로 저회들이 당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고 비박은 비박대로 박근혜택으로부터 저회들이 당을 지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서 《물갈이》대상

이 아니라 권력은 속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중진이 라는자들이 《쇄신을 위해서는 당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신인들로 중진들을 때리자는 것이다》고 반발하면서 당대표인 황교안이 당에서 손을 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기회생》과 《보수대통합》을 떠들면서 《협지》출마에 앞장 서겠다고 리소리를 치던 황교안이 《협지》출마로 《총선》에서 당선가능성이 없어 지자 《비례대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비례대표출마로 립장을 바꾸자 각 계파들은 분노하여 《자한당》은 황교안의 사당이 아니라 더욱 더 반발하고 있다.

남조선의 정치권에서는 황교안이 떠드는 《보수대통합》이란 결국은 온갖 보수 썰기자들을 끌어모아 《대통령》감투를 쓰기 위한 제물, 밀거래를 쓰게 만들자는 것으로서 그 무슨 《보수의 혁신》 역시 자기의 정치적적수, 반대파들을 제껴버리기

위한 속셈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의 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권력야욕에 사로잡혀 어제는 친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다가도 형세가 불리해지면 차던지고 오늘은 리명박과와 비박근혜파를 끌어당기며 번덕을 부리는 것이 《토사구팽》의 술수를 쓰는 황교안의 진면모이다.

그 속심을 모를 리 없는 《자한당》의 매커리들이건만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 무대엔 썰기자들은 권력의 예고몰이라도 얻어먹을 가 하여 넓게 열린 파멸의 구렁렁이로 《정치생동이》, 간상배인 황교안을 노면 땅이 치러릴 파다가 있다.

눈멀고 귀머지자들을 끌고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황교안이 이달로 21세기의 돈끼호테가 아닐 수 없다.

본사기자 한복순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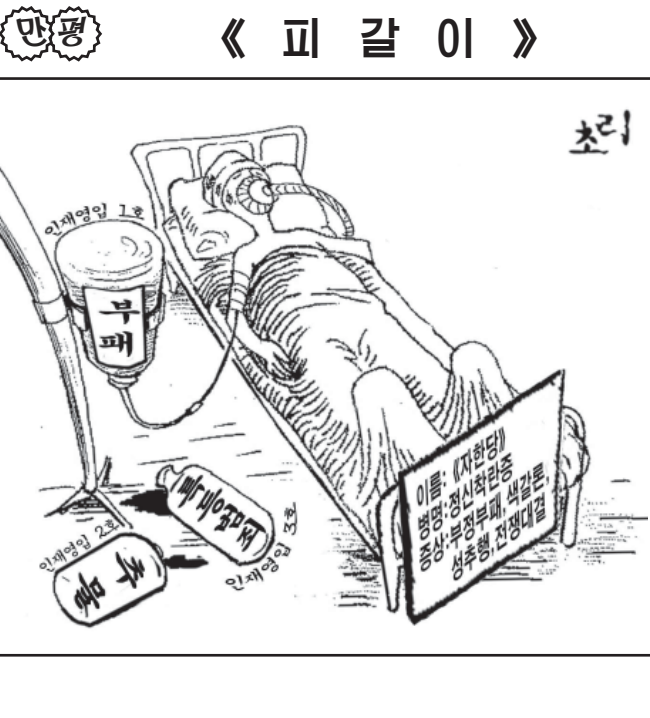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복순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김영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 화학공업부문을에서 -

경제전선을 오늘의 정면 돌파전의 기본전선으로 정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부문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이 새해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새해 첫 현지지도를 받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1월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도 맞먹는 아름차고 어려운 대상건설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가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의 투쟁분배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순천린비료공장건설지휘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

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린비료공장의 모든 요소들과 공정을 현대화하고 로력절약형공업으로 일떠세울 목표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건설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고노동린안비료생산공정 건설을 위한 구조물공사와 설비조립이 마감단계에서 질적으로 진척되고있는데 맞게 순천린비료공장에 원료를 보충하는 린회석광산들을 시급히 환원복구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두고있다.

화학공업부문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도 현행공정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2.8비날론린합기공업소에서 생산정상에 필요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추운 날씨조건에서 공정간 연속성을 담보할수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세우고 주체비날론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있으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가성소다, 염화비날론생산에서도 양양을 일으키고있다.

뿐만아니라 멜라민수지생산공정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공정계획에 따라 진척되고있다.

화학공업의 부문구조들을 현대적으로 개건완비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종이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는 신의주화학공업부문의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회담초에 의한 탄산소다생산공정공사를 공정별계획에 맞게 드림없이 수행하고있으며 농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온실용박막생산공정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가고있다.

홍남비료린합기공업소에서 농업부문에 보내줄 수 천능력의 영양액비료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와 설비, 장치물제작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뿐만아니라 멜라민수지생산공정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공정계획에 따라 진척되고있다.

화학공업업선의 일군들은 결집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적양상을 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달려나가 생산정상화와 현대화공사에 필요한 전력과 원료, 자재보장상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있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제일먼저 돌파구를 열어주기 위한 화학공업부문 생산자들의 창조적열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방문기

질 좋은 편직물들을 더 많이

우리는 얼마전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는 애국편직물공장을 찾았다.

공장주내에 들어서니 온늘의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으로 정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결정을 기어이 관철할 결의의 높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이룩해가고있는 종업원들을 소개한 숙보판들이 눈앞에 안겨왔다.

우리를 맞이한 강명국지배인은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질 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고 말했다.

신심에 넘치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공장을 돌아다녔다.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겠다.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자력경쟁의 힘으로 정면돌파하면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음향설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

본사기자 림광훈

죽한 수가 있었는가 하면서 방관하고있었다.

하지만 우리 공장이 어떤 공장인가, 모든 기대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것이라고 말하는 지배인의 호소는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대환기를 개조할것을 결의해나섰고 그 과정에 좋은 기술혁신인들이 나왔다.

말이 개조일따름이지 새로 만드는것이냐 다름이 없는 대환기개조작업을 공장에서는 생산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밀고나갔다고 한다.

그러하여 저장식실공급기를 받아들이어 새롭게 개조한 대환기로 생산한 편직물의 질은 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 생산량도 1.7배로 뛰여올랐다고 한다.

럼향숙책임부원은 대환기를 개조하는 날엔 자력경쟁이 얼마나 좋은가를 실감하였다고, 올해에도 부속품들을 자체로 보장하여 외면대환기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줄지어 늘어선 대환기들마다에서 연속 감겨여지는 편직천통구리가 불만했다.

이어 염색작업반에 들리니 생산되는 편직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기술을 부단히 혁신하면서 염색의 질을 높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재단작업반에서도 종산절약목표를 높이 세우고 앞선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천을 절약하면서 재단작업을 선행시키고 있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공장에서는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엄격한 제품검사체계를 세우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혁신과 새 제품개발을 위한 현상보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착상이 기발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있다.

이 과정에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내의류와 운동복, T셔츠를 비롯하여 제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제품의 질도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었다.

비약의 승륙을 높이는 생산현장과 그리고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편직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 내놓는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열의안고 끊임없는 생산적혁신을 일구는것은 종업원들의 모습은 우리를 크게 감동시켰다.

본사기자 황금속



인기 있는 음향설비 《메아리》

공화국에서 《메아리》 상표를 단 각종 음향설비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메아리》음향설비들은 메아리음향사에서 생산되고있다.

메아리음향사는 국내에서 현대적인 음향설비 종합생산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 음향사에서 생산한 현대적인 음향설비들은 지난 기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여러차례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이곳 음향사에서 생산한 현대적인 음향설비들은 지난 기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여러차례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이곳 음향사에서 생산한 현대적인 음향설비들은 지난 기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여러차례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은 응용적방법의 실현, 무변성기마이크로와 증폭기보호기술의 도입, 고성기진동판의 현대화실현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얼마전 메아리음향사를 찾은 기자는 전상봉부원의 안내를 받으며 음향설비들을 생산하는 현장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는 각종 마이크와 증폭기, 마이크로식화면노래반주기, 지능형화면노래반주기, 대출력고성기들이 제작되고있다.

전상봉부원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들의 전기음향학적특성과 감도, 명료도, 주파수특성 등에 있어 성능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진동판

기능과 저음, 중음, 고음의 외함설계 등을 보다 과학화하여 실내와 야외에서 리용해도 손색이 없도록 대출력고성기들의 음압준위를 높였다고 한다.

이곳 음향사에서는 지능형화면노래반주기도 만들고 있다.

이어 기자는 메아리음향사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음향설비들을 판매하는 곳에도 들리었다.

그곳은 음향설비들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다.

기자도 만난 김정숙영양방직공장 로동자 김성실은 메아리음향사에서 만든 지능형화면노래반주기를 사용해 보니 성능이 좋다는것이 알린다고, 이 화면노래반주기로 노래하니 누구나 《퍼

폴새》라고 칭찬한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이곳 음향사에서 생산한 음성도서읽기엔 《소리연필》도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았다.

여러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말과 외국어를 손쉽게 익힐수 있는 음성도서읽기판 《소리연필》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저마다 요구하고 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국가적인 방역사업에 힘써주세요

최근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로 급속히 전파되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기자는 파성준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부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신형코로나비루스에 의한 피해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로 급속히 확대되고있지 않습니까?

파성준: 그렇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엔 발견된 새로운 악성비루스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이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코로나비루스는 모두 6가지로 알려져있다.

그중 4가지는 사람에게 감염되면 일반감기와 같은 경한 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비루스이고 나머지 2가지는 지난 시기 세계를 바짝 긴장시켰던 썬나 메르스를 일으키는 비루스들이다.

그러나 이번엔 발견된 신형코로나비루스는 지난 시기의 코로나비루스들과 그 특성이 전혀 다르다.

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열나기, 기침과 같은 감기증상을 보이다가 심해지면 호흡곤란과 여러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나아가서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된다.

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가 검출된 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감염자수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금 이 비루스는 타이, 일본, 남조선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되어 그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기자: 공화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있습니까?

파성준: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긴급한 령계밀에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강

력하게 내밀고있다.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지 않을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국경 검역사업을 강화하여 비행장과 국경철도역에서 발생지역이나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온 측정 및 이상증후들에 대한 검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하고있다.

또한 위생선진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대한 상식과 전염경로, 방역대책 등에 대하여 잘 알고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체 위생을 잘 지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반드시 입을 가리우도록 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기갈이와 청소, 물건소독을 자주 하도록 하고있다.

호당당의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높여 발생지역이나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대상들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강화하고 열이 나거나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이 있는 환자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위생방역기관에 통보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우리는 신형코로나비루스에 대한 위생방역사업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중진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겠다.

교육제도에 비낀 두 현실

교육제도는 해당 사회의 문명정도를 가능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소학교로부터 대학교를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계를 세운 기초우에서 나라의 경제도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인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1956년 8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된데 이어 2년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1966년 11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의 법령을 채택하고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은 세상에 선포하였다.

공화국의 무교육제는 또한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다.

새 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뿐만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상에 따라 공화국의 교육제도가 날이 발전하는 속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공업대학, 한덕수평양공업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세워져 각계층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으며 그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로동자이건 농민이건 일군이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원격교육체계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배울수 있다.

그러나 《문명》을 끝날 의우는 자본

주의사회의 교육제도와 실패는 어떠한가.

교육이 철두철미 돈벌이수단으로 되어버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새 세대들의 배움의 권리와 그들의 장래가 부모들의 돈주머니에 의해 결정된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어머니의 배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들이 학비걱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교육이 사람들을 사회의 주인공으로가 아니라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있다.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돈에 의하여 규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적교육제도에 대해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소수 특권계층에게만 치부와 안락을 주는 변화가를 두고 아무도 《문명》을 떠들어대도 사회에 드러온 어두운 그림자를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교육제도 하나만 놓고도 문명으로 더욱 밝아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와 압축속에서 허덕이는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차이를 알수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공화국에서는 새 세대들을 위한 원격교육체계를

《영양체육의 진수여》



설명절을 맞으며 개선문광장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연례우기, 제기차기, 줄넘기, 팽이치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줄을 조종하는 학생소년들... 창공을 날오는 연례에는 《설명절》, 《2020》 등의 글밭이 새겨져 있었다.

면서 제주를 부리거나 누가 많이 차올리는가를 겨루는 제기차기에 열을 올렸다.

런해나갔다. 한쪽에서는 노래에 맞추어 땀줄을 가볍게 뛰여넘는 녀학생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도 보였다.

청소년학생들의 다채로운 민속놀이는 설명절분위기를 한껏 돋우며 사람들에게 민족적정서를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3)

세계레슬링선수권보유자 박영미



평양체육단의 박영미선수는 2019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53kg급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일본선수는 이미전에 진행된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와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박영미선수와 맞닥뜨린 적이 있는 선수였다.

스트링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레슬링선수가 갖추어야 할 적성체질을 소유한 그는 인차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새로 등록된 천연기념물들

공화국에서 금강산빙하흔적과 송흥온천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되었다.

은 금강산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함경북도 김책시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송흥온천은 류산이온, 나트륨이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민생과산생위염, 만성기관지염, 만성소내장염, 신경통, 습진, 불임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좋다.

백성은 나이가 벼슬

김성기는 비록 지위와 신분이 낮은 출신이었으나 항상 음악가라는 높은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양반사대부들의 권세와 전횡앞에서 굽신거릴 줄 몰랐다.

백성은 나이가 벼슬

그때 김성기는 친구들과 함께 한창 비파를 타고있고 호롱늬는 대청마루를 광광 두발로 구르며 게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다.

백성은 나이가 벼슬

김성기는 아직도 분이 식지 않은듯 가뭇뭇한 얼굴로 호롱늬를 바라보았다. 「호롱이 이놈! 네가 사람들을 모함하여 죽이기를 일삼더니 이제 나까지 어찌겠나.」

사화

결의 삼형제 (5)

글 박병식, 그림 채대성

령이 떨어지자마자 군노사령들이 박회준을 형틀앞으로 끌어다가 익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형틀에 묶었다.

《여봐라, 이년이 몹시 독한 년이니 사실대로 고하겠다 고 할 때까지 섬속에 잡아넣어 숨통이 막히도록 묶어 두어라.》

《예, 이제 소인이 그간에 있는 일을 아뢰오리다.》 정회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다.



《회준은 회수가 먼저 저지기를 지고 갔다는 다음 가져라.》 사도가 엄하게 분부하니 사령 하나가 정회수의 윤기도는 도로자락을 덥석 잡아 끌어다가 섬지계를 강다짐으로 지었다.

정회수는 섬을 지고 앞으로 도로로도 발을 댄지 못하고 주저주저하였다. 《관장명을 거역하면 네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놈.》

역사인물

너류화가 신사임당

16세기의 재능있는 너류미술가인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어 학식을 넓혔으며 시와 서예, 그림은 물론 자수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기러기》, 《산수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예술적형상의 생동성과 묘사의 진실성으로 하여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가지》는 너류화의 특기가 남김없이 발휘된 작품중의 하나이다.